

삼성전기, LG이노텍 생산지연 수혜

LGD에 LCD TV용 LED 모듈 공급 ... LG이노텍 생산 안정화까지 사용

삼성전기가 LG디스플레이에 TV용 LED(발광다이오드) 부품을 공급하게 됐다.

삼성전기는 LG디스플레이에 LCD TV 광원으로 사용되는 LED 모듈을 공급할 예정으로 LG전자는 삼성전기의 모듈이 채용된 LED TV를 5월부터 본격 양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 관계자는 “그동안 LG디스플레이에 노트북 PC 등 소형 디스플레이용 LED 모듈을 공급한 적은 있으나 TV용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원래 LED 부품을 계열사인 LG이노텍으로부터 모듈을 공급받아 패널을 생산하고 LG전자에 납품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LG이노텍의 양산이 다소 지연되면서 일단 삼성전기 부품을 사용키로 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G이노텍이 경쟁력을 갖춘 TV용 LED 모듈을 생산하기까지 5월 TV 양산에 맞춰 삼성전기 부품을 사용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머지않아 LG이노텍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3/27>